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리

특집 비기너를 위한 오디오의 권유 -무엇을 고를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라

AV 특집 AV사운드의 필수품 방자형 스피커 대접성

화제의 제품 그 매력의 비밀을 켄다 10 EMPEROR SP-01

AV Wonderland 삼성 AV-860A AV센터

20

1997 제5권 제2호

20

특 집
AV 특집

비기너를 위한 오디오의 권유 -무엇을 고를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라
AV사운드의 필수품 방자형 스피커 대접성





지아니 보리나토 사장

파토스의 지아니 보리나토 사장

앰프란 출력보다는
잘 통제된 저역과
자연스러운 중고역의
재생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뷰어 · 장경렬

인폴이라는 혁신적인 회로를 채용한 앰프로 오디오 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던 신세대의 명가 파토스. 파토스가 진공관과 반도체의 장점만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이며 인폴 회로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파토스가 자사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하이 퀄리티의 트윈 타워스에 뒤이어 파토스 특유의 디자인 감각으로 예술품처럼 만든 개성적인 인파워 앰프를 선보였다. 오디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세계에 널리 음악을 전파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보리나토 사장. 3월 어느 날 저녁 불쑥 한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보았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 인폴 회로로 세계의 주목을 받다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토스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이지만 오디오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명성은 이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사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B: 글썄요, 아마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뛰어난 음질과 멋진 디자인 덕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파토스는 원래 음악을 사랑하는 세 친구가 만나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1979년에 파올로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파올로는 예술사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돈을 벌기 위해 2인조 악단을 조직했는데, 저는 기타를 쳤고 파올로는 피아노를 쳤지요. 그러다 곧 가에타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는 아주 훌륭한 하이파이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어울려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력을 쌓아 가던 중에 우리 세 사람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합쳐 함께 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혁신적인 회로의 앰프를 만들어 파올로와 가에타노에게 소개했지요. 사실 제대로 동작이 될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저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제품의 결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오디오 전문가들 모두가 우리와 같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앰프를 계기로 정식 회사를

하이브리드형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각 소자의 단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만 설계하면 양쪽 소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지요. 저희 파토스의 앰프는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확신합니다. 인폴 회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진공관의 음색이 살아나는 동시에 반도체 소자의 파워감도 갖는 앰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앰프의 혁신적인 회로를 인폴(INPOL)로 명명했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았지요.

— 그런데 회사 이름을 파토스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B: 파토스는 고대 희랍어로 정념(情念)이라는 뜻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느끼는 연민의 정과 고뇌 등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이러한 회사명을 통해 우리 세 사람의 오디오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오디오를 예술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군요. 인폴이라는 용어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B: 인폴은 이탈리아어로 Inseguire Pompa Lineare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옮긴다면 Pump Current Linear Follower라고 하면 되겠지요.

— 그럼 인폴이라는 회로 개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인폴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는 앰프의 출력 전압의 약간 부분을 입력단에 보냄으로써 입력 신호의 일부를 차단해 줍니다. 이로 인해 앰프 자체가 유도하는 신호상의 잡음이 줄어들게 되며 뎀핑 팩터도 증가하게

되지요. 그러나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는 필연적으로 음의 자연스러움과 선명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설계상으로 뛰어난 앰프라고 하더라도 신호의 찌그러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인폴 회로입니다. 출력단에 3개의 MOS-FET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윈 타워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압상의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반면에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류상의 이득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단 반도체 소자의 에미터에 대형 인덕터 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출력 임피던스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요.

진공관과 반도체의 장점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앰프로 신뢰감 가져

— 파토스의 앰프는 모두 진공관과 반도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앰프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B: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색이 차갑고 날카로워집니다. CD 음악만을 듣는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지지요. 그러나 반도체 소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준다는 장점도 갖고 있지요. 진공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공관은 그 음색이 따뜻하고 자연스럽지만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출력 트랜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자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앰프를 설계하는 것이지요.

— 물론 하이브리드형으로 설계한

앰프가 모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B: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형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각 소자의 단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만 설계하면 양쪽 소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지요. 저희 파토스의 앰프는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확신합니다. 인폴 회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트윈 타워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출력단에는 MOS-FET가, 입력단에는 진공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공관의 독특한 음색을 살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호 전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진공관의 음색이 살아나는 동시에 반도체 소자의 힘도 갖는 앰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앞으로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형 앰프만을 만들 계획입니까? 또 다른 획기적인 앰프를 선보일 계획은 없는지요?

B: 글썄요, 당분간은 인폴 회로에 의한 하이브리드형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회로를 구상하고 이에 따라 반도체, 또는 진공관 소자만을 사용한 앰프를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파토스의 앰프는 음색이 다소 날카롭다거나 저역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사용자측에서 매칭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파토스 앰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B: 그런 지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전혀 뜻밖입니다. 특히 저희 앰프가 날카롭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세계적으로 저희 트윈 타워스의 중고역의 아름다움은

최고라는 극찬을 받아 왔습니다. 즉, 아주 따뜻하고 음악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선명한 음의 세계를 펼쳐준다는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저역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트윈 타워스의 출력이 30W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일반 가정에서 중급 정도의 음력을 갖는 스피커와 연결해서 충분한 저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없다고 봅니다. 매칭도 까다롭다거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시청실이 아주 넓고 스피커의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더 출력이 큰 앰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의 인파워라는 모노 블록형 파워앰프를 사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어쨌든 트윈 타워스는 파토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개성적이면서도 뛰어난 앰프라는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 보더라도 이 앰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하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노 블록형 파워앰프인 인파워에 대해서도 간단

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B: 인파워는 채널당 2개의 인폴 회로를 병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증폭 소자는 신호를 증폭할 때 필연적으로 찌그러짐 현상을 수반합니다. 트윈 타워스의 경우에는 출력이 30W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찌그러짐 현상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을 작게 한 것입니다. 출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호의 찌그러짐을 막기 위해서 피드백 회로는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인폴 회로를 1채널에 2개씩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개의 인폴 회로에 동일 입력 신호를 180도 위상차를 주어서 입력하는 경우에는 증폭 소자의 특성에 따른 신호의 찌그러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해서 신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동일 신호에 180도 위상차를 주어 앰프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인파워의 출력은 75W입니다.

자이니 보리나토 사장(우)과 정경렬 교수.



앰프는 무엇보다 잘 통제된 저역이 중요 피로감을 주지 않는 사운드이어야

— 한국의 오디오 애호가들 가운데는 웅장한 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급 앰프 가운데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뛰어난 저역을 재생할 수 있는 앰프를 설계하기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B: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혹시 파토스 앰프의 저역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앰프들이 파토스 앰프에 비해 저역이 더 풍부하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저역의 음량이 풍부한 앰프를 설계하기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력하고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잘 통제된 저음을 살려주는 앰프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앰프가 부정확하고 웅웅거리는 저음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정확하고 웅웅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앰프와 뛰어난 스피커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몇 가지 흥미로운 스피커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도에 다시 관심을 기울여 저희 고유의 스피커를 선보일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의 명성을 보다 확고하게 만든 후에야 실현될 사안일 것입니다.

음을 강력하거나 풍성한 저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실제의 연주회장이나 그곳에서 콘트라베이스나 피아노의 저음을 들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앰프 메이커들이 구매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저음이 나도록 앰프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오디오 애호가라면 이에 속지 않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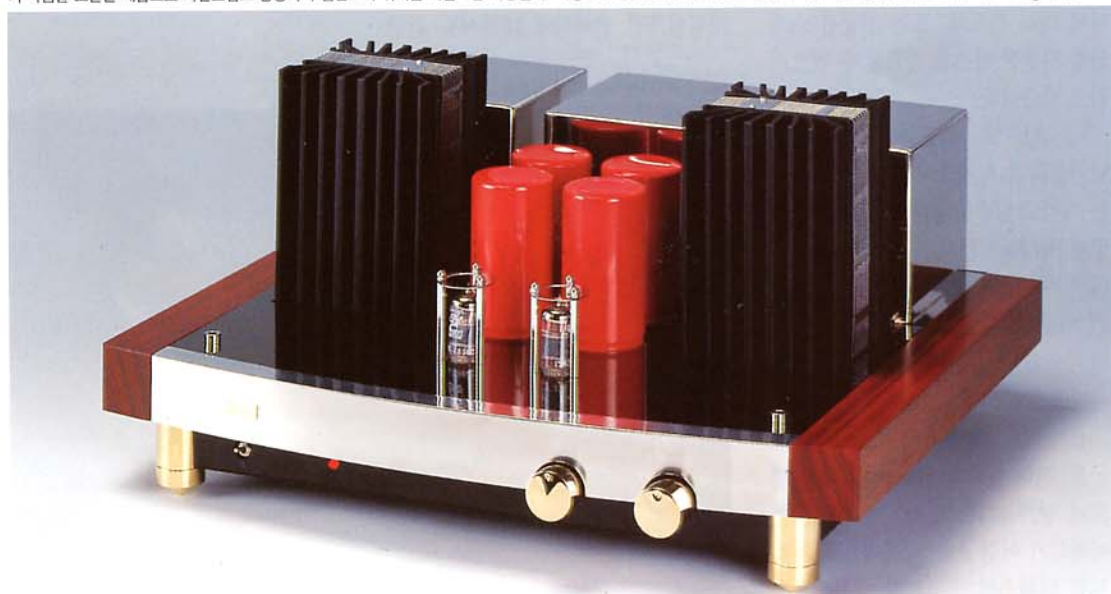
— 그럼 톤 컨트롤을 이용해서 저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앰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니까?

B: 저가의 보급형 앰프에는 흔히 베이스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저음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우선은 마음에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30초만 들어보세요. 곧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파토스의 앰프는 바로 이와 같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얼마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디오 쇼가 있었을 때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음악을 듣다 보니 피곤하더군요. 그런데도 저희 시스템을 꺼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은 채 음악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파토스의 앰프에 잘 어울리는 시스템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스피커나 CD플레이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 파토스의 앰프는 대단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중립적으로 음을 재생해줍니다. 즉 어떤 음성 신호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어서 이를 스피커에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저의 추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파토스를 단숨에 앰프의 명문으로 올려놓는 데 기여한 트윈 타워스 인터그레이티드 앰프. 인폴이라는 독자적인 회로를 채용해서 기존 하이브리드형의 약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자연스럽고 청명하며 밸런스가 뛰어난 사운드를 자랑한다. 사용된 진공관은 12AX7 2개이고, 출력은 채널당 30W(8 Ω), 무게는 45kg이다.



단 한마디의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스피커와 CD플레이어를 매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권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지나치게 임피던스가 낮은 스피커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물론 트윈 타워스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인파워와는 관계없는 조언입니다. 인파워는 어떤 종류의 스피커라도 만족스럽게 구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 현재 파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퍼런스 시스템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싶지요.

B: 파토스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10평 가량의 시청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실험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음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 시청실에는 마틴 로건, B&W, 실, 인피니티 등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중에서 B&W의 실버 시그너처라는 스피커를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앰프로 구동할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는 스피커이지요.

—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궁금해지는데요?

B: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저의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파토스의 시청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파토스의 시청실에서 자주 애청하는 음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선호하는 연주가 있는지요?

B: 저는 부드러운 재즈나 록 그리고 클래식 모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기타 연주가이기 때문에 에릭 클랩튼과 같은 기타 연주자들의 음

악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애호가들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 이탈리아의 예술적 전통의 산물

—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 파토스의 디자인을 화제에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토스 제품의 디자인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만하지요. 디자인 작업에도 직접 관여하십니까?

B: 그쪽 분야는 파올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파올로는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지요. 아마도 그의 예술적 감각이 전공과 무관

파토스가 제2탄으로 내놓은 모노 블록형 파워앰프 인파워. 역시 특허 기술인 인폴 회로를 채용하고 입력단에는 12AX7 진공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생생하고 잘 정제된 이지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빼어난 디자인도 눈길을 끄는데 밸런스 입력단만 갖추고 있으며, 출력은 75W(8Ω). 무게는 개당 50kg이다.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미적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상품 디자이너들이 일반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경향이 있지만 파올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의 취향을 자신의 디자인에 아주 잘 반영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만 맞는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드는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 파토스의 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오디오 기기들 가운데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예술적 전통 때문이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작품의 80%가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전쟁 중에 많은 제품들이 국외로 유출되어 전세계의 박물관들을 장식하게 된 거지요.

CD트랜스포터도 개발중이지만 스피커까지 선보일 야심도 갖고 있어

— 그렇군요. 그래서 앰프의 디자인이 그렇게 뛰어난군요. 그런데 파토스는 현재 앰프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피커나 CD플레이어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은 없는지요?

B: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앰프와 뛰어난 스피커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몇 가지 흥미로운 스피커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설계도에 다시 관심을

오디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에 음악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세계는 2천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음악은 전세계의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함께 자리를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종과 문화,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기울여 저희 고유의 스피커를 선보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의 명성을 보다 확고하게 만든 후에야 실현될 사안일 것입니다. 당분간은 앰프 제작에만 관심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CD트랜스포터를 개발중에 있다는 사실은 밝혀 드립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AV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로 진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B: 물론 AV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AV시스템도 선보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현재의 파토스가 갖고 있는 명성을 보다 확고하게 만든 후에야 실천에 옮길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디오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묻고 싶군요.

B: 몇 년 전에만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서슴없이 여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멋진 가정을 갖게 되었고 한 살배기 아들과 네 살배기 딸 그리고 나의 아내와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저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음악을 듣는 일과 좋은 책을 읽는 일, 그리고 멋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일 겁니다.

—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오디오 메이커를 방문하거나 그 회사의 제품들을 시청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충고할 말씀이 있다면?

B: 물론 한국에 자주 왔었지요. 훌륭한 친구들이 한국에 있고 그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오디오 제작 회사를 방문하거나 그 회사의 제품들을 시청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의 오디오 관계 종사자들도 그 분위기에 맞추어 진지하게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특별히 해야 할 충고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말씀 올리자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의 힘을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디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에 음악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유럽이든 미주 지역이든, 혹은 아시아 지역이든 어느 곳을 여행하더라도 항상 훌륭한 음악을 즐길 수 있었고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2천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음악은 전세계의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함께 자리를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종과 문화,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 음악의 힘에 대한 귀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B: 감사합니다.